

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의 2030 지속 가능성 목표 농업 종사자

2,500만 농업 종사자에게 토양 상태, 영양 및 수질관리 스튜어드십, 생산성 모범 사례에 대한 교육 제공

- 목표의 진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산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.
- 고유의 개인을 식별하려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교육 모듈 또는 지식 전달을 통해 생산자를 참여시키는 정도를 계산합니다.
- 농민이 다양한 주제(예: 토양 상태, 수질 관리 등)의 내용에 관련되거나 내용이 여러 번 강조될 경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이러한 목표를 갖고 제공되는 교육 내용은 토양 상태, 수자원 스튜어드십과 관련된 다른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.

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의 2030 지속 가능성 목표 농업 종사자

2030년까지 총 5억 명의 영세 농민의 생산성, 소득,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강화

- 목표의 진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산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. 고유한 개인을 식별하려 하기보다는 생산성, 소득,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영세 농민과 얼마나 협력하는지를 계산합니다.
- 농민이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참여할 때마다 의미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. Corteva의 목표는,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결과가 지속되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.
- '영세 농민'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준적인 정의는 없습니다. Corteva는 영세 농민에 대한 헥타르 기준을 지정하지 않습니다.
- 세계 은행, 정부 기관에서 농민의 자원 가용성, 취약점, 빈곤, 식량 안보를 고려한 '영세 농민' 정의를 토대로 한 국가별 지표를 활용합니다.
-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적절한 식량 공급량의 생산 보장
 - 빈곤 완화
 - 증가하는 인구의 건강 및 영양 증진
 - 천연 자원 보호
- 앞으로 개발 조직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지역에 모범이 되는 농업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.
- 모범적인 농가를 활용하여 영세 농민의 생산성, 소득,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이 개선된 정도를 정량화할 것입니다.

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의 2030 지속 가능성 목표 농업 종사자

농민들의 작물 수확률이 2020년 대비 지속적으로 20% 상승하도록 관리 시스템을 설계, 검증하고 확대하는 동시에 2020년 대비 작물재배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20% 축소

- 평균 3년을 투자하여 이 목표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여 매년 적절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.
- 수확량 증가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, 병시된 다른 지속 가능한 목표에 어긋나는 연쇄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
- 작물재배 체계 개선, 관리 개선, 투입 최적화와 디지털 의사 결정 지원 등의 전략을 통해 수확량 개선과 온실가스 감소를 추구합니다.
- 이 목표에 적합한 작물재배 체계 우선순위:
 - 카놀라
 - 옥수수
 - 면
 - 쌀
 - 대두
 - 해바라기
 - 밀